■ 민족문화연구 제83호(2019.05.3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669-694.
http://doi.org/10.17948/kcs.2019..83.669

심리변화 관련 주술관계 연어의 선택 제약 분석*

범기혜(范琦慧)**

목 차

1. 머리말
2. 선행 연구
3. 연구 대상의 선정
4. 연어 구성 요소의 선택 제약
5. 맺음말

국문초록

한국어 연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가장 기본적인 연어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목술관계 연어와 주술관계 연어이다. 목술관계 연어는 중국어로 옮길 때 연어핵과 연어변의 관계가 대부분 유지가 되지만 주술관계 연어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중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연어를 학습하는 데 목술관계 연어보다 주술관계 연어에 대한 이해 또는 습득이 더 어려울 수 있다. 본고는 심리 변화를 나타내는 주술관

* 이 논문은 南通大學 인문사회과학 박사기금과제 “中韓 抽象名詞 關聯 連語의 對照 및 應用 硏究”(번호: 03081103), 南通大學 인문사회과학 일반과제 “Corpus에 基盤한 韓國 漢字語 關聯 連語 硏究”(번호: 17w05), 外硏社 외국어 교육 및 학술 연구과제 “Corpus에 基盤한 中韓 基礎 抽象名詞 關聯 連語의 對照 硏究”(번호: 18RH059) 등의 지원을 받은 연구 성과이며, 2017년 11월 3-5일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에서 주최한 제6회 중국 차세대 한국어교육자 포럼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다.

** 중국 南通大學 외국어대학 조교수.

계 연어, 즉 연어핵은 생각 또는 감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추상 명사이고 연어변은 발생의 의미를 지닌 동사인 경우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연어핵과 연어변 사이에 어떠한 선택 제약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런 작은 시도를 통해 한국어 연어 교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제어: 목술관계 연어, 주술관계 연어, 연어핵, 연어변, 선택제약.

1. 머리말

외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기계 번역, 두 언어 사전 편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어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한 사실이다. 한국어 연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가장 기본적인 연어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목술관계 연어(목적어+술어)와 주술관계 연어(주어+술어)이다.[1] 목술관계 연어는 중국어로 옮길 때 연어핵과 연어변[2]의 관계가 대부분 유지가 되지만 주술관계 연어는 그렇지 않다.[3] 따라서 중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연어를 학습하는 데 목술관계 연어보다 주술관계 연어에 대한 이해 또는 습득이 더 어려울 수 있다. 본고는 이런 착안점에서 출발해서 주술관계 연어를 일차적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연어를 표제어로 삼는 최초의 사전인 『연어전자사전』에 수록된 2,098개의

1)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 구축사업의 연어분과 결과물』(이하 『연어전자사전』으로 칭함)에서 목술관계 연어가 5,320개, 주술관계 연어가 2,098개로 각각 전체 연어의 60.5%, 23.8%를 차지하고 있다.

2) 본고에서 연어핵과 연어변의 구분은 임홍빈, 「한국어 연어의 개념과 그 통사・의미적 성격」, 『국어학』 제39호, 국어학회, 2002에 따른다. 임홍빈에 따르면 연어 관계는 한 요소가 다른 요소를 선택하는 관계이고 선택하는 요소는 '연어핵', 선택되는 요소는 '연어변'이다. 그리고 '명사+용언'의 연어 구성에서 연어핵이 되는 것은 명사이다.

3) 주술관계 연어를 중국어로 옮길 때 主謂短語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지는 않다. '키가 크다(个子高)', '굽이 높다(鞋跟高)', '혈압이 오르다(血压上升)', '해가 떨어지다(太阳落山)' 등이 그 예이다. 하지만 이런 대응은 술어가 형용사 또는 일부 동사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회가 있다(有机会)', '희망이 없다(没有希望)', '비가 내리다(下雨)', '고장이 나다(出故障)', '바람이 일어나다(起风)', '문제가 생기다(产生问题)', '눈물이 나오다(流眼泪)' 등 대부분 주술관계 연어는 중국어로 옮겨지면서 연어핵과 연어변의 관계가 바뀌게 된다. 범기혜, 「중국어와의 대조를 통해 본 한국어 연어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0과 석아남, 「한국어 연어와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 연구—주술・목술관계 연어를 중심으로」, 연변대학 석사학위논문, 2013 참고.

주술관계 연어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5개의 동사(나다, 들다, 되다, 가다, 오다)와 그 동사들과 결합된 명사들을 살펴보았는데 상당수의 주술관계 연어는 생각 또는 감정의 발생을 나타내고 있고 그런 경우에 대부분의 연어핵이 심리를 나타내는 추상 명사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연어 구성 요소가 추상적인 의미를 가질수록 또는 비슷한 의미를 가진 연어 구성이 많이 존재할수록 학습자의 학습량뿐만 아니라 학습의 어려움도 배로 늘어난다. 예를 들면, '공감이 가다', '호감이 가다', '실감이 가다', '친밀감이 가다'는 가능하지만 '*예감이 가다', '*영감이 가다', '*행복감이 가다', '*거부감이 가다' 등은 어색하다. 또한 '관심이 가다'는 가능하지만 '*관심이 나다' 또는 '*관심이 들다'는 불가능한 표현이다. 한편으로 '의심이 가다', '의심이 나다', '의심이 들다'는 모두 가능하다.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이렇게 많은 내용을 무조건 외우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심리 변화[4]를 나타내는 주술관계 연어, 즉 연어핵은 생각 또는 감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추상 명사이고 연어변은 발생의 의미를 지닌 동사인 경우를 최종 연구 대상[5]으로 삼고 연어핵과 연어변 사이에 어떠한 선택 제약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이런 작은 시도를 통해 한국어 연어 교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 선행 연구

지금까지 연어의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달리 정의되어 왔지만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은 연어가 긴밀하고 고정적인 그리고 관습적인 공기 관계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연어에 대한 연구는 크게 연어의 개념과 특성, 연어의 하위 분류, 연어 구성 요소 사이의 선택 관계, 말뭉치에서의 연어 추출, 연어

4) 본고에서 말하는 심리 변화는 생각 또는 감정의 변화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생각이 나다'와 같이 생각의 변화를 나타내는 연어도 본고의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5) 본고는 연어 구성 요소의 중복도를 주요 기준으로 삼아 연구 대상의 연어핵과 연어변을 제한시켰다. 따라서 '화가 풀리다'와 같이 연어변이 발생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 경우, 또는 '뚜껑이 열리다'와 같이 연어핵이 생각 또는 감정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는 본고의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추후에 다른 논문을 통해 연구 범위를 더 넓힐 예정이다.

의 사전적 처리, 다국어 연어의 대조, 연어의 교육 방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어 왔다. 본고는 주술관계 연어의 선택 제약을 논의하기 위해서 연어 구성 요소의 선택 관계를 다룬 주요 연구들을 부분적으로 살펴보겠다.

① 김진해[6]: 연어 관계는 특정 어휘가 다른 어휘를 요구함으로써 발생하는 어휘소들 간의 제한적 공기 관계이다.
② 임홍빈[7]: 연어 관계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문법적 구성에 나타나는 두 어휘소 사이의 어휘적인 선택관계이다. 한 요소가 다른 요소를 선택하는 관계인데 선택하는 요소를 '연어핵', 선택되는 요소를 '연어변'이다.
③ 이동혁[8]: 연어관계는 의미 분절로 인하여 의미 계열이 다른 어휘소들이 맺는 직접적인 어휘 관계이다. 그들의 의미관계는 대상관계와 속성관계로 나뉜다.
④ 박진희[9]: 공기관계 제약은 연어 제약과 선택 제약으로 나뉘는데 연어 제약은 관습에 의한 결합 관계를 나타내고 선택 제약은 어휘 개념 구조에 의한 논리적인 선택 관계를 가리킨다. 연어 표현은 연어 제약에 의해 선택 관계를 맺은 어휘소로 구성된다.
⑤ 임근석[10]: 연어는 어휘 요소 상호 간 또는 어휘 요소와 문법 요소 간의 긴밀한 통사적 결합 구성이다. 선택의 주체가 되는 어휘 요소(연어핵)가 선택의 대상이 되는 어휘 요소나 문법 요소(연어변)를 제약적으로 선택한다.

이 논의들의 공통점은 연어 관계를 어휘소 간의 선택 관계로 보고 선택 또는 피선택 여부에 따라 연어핵과 연어변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선택과 피선택을 구분하는 데에는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다. 그리고 어휘 선택 제약을 연어와 자유 결합을 구분하는 판별 기준으로만 간주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제약을 받고 있는지 또 왜 그런 제약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

범기혜[11]는 어휘소 간의 선택 관계가 연어를 구성하는 두 어휘소의 의미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다. 가령 '눈을 뜨다'에서 '뜨다'가 '눈'을 선택하

6) 김진해, 『연어 연구』, 한국문화사, 2000a.
7) 임홍빈, 앞의 글.
8) 이동혁, 「국어 연어관계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4.
9) 박진희, 「연어 제약에 대하여」, 『어문연구』 제3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10) 임근석, 「한국어 연어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6.
11) 범기혜, 앞의 글.

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뜨다'가 '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한편 '욕을 먹다'에서 '욕'이 '먹다'를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욕'이 다양한 파생의미를 가진 '먹다'에 비해서 쓰임새가 훨씬 좁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결론을 내리다', '새빨간 거짓말', '트집을 잡다'의 '내리다', '새빨갛다', '잡다'를 '하강시키다', '빨갛다', '쥐다'로 바꿀 수 없는 것도 각각 다른 의미 확장 과정을 거쳐서 파생적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12]

본고는 이 논의에 따라 주술관계 연어의 구성 요소 사이에도 의미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선택 제약이 존재하는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전개하려고 한다.

3. 연구 대상의 선정

연어의 대표성과 전형성을 고려해서 연어 구성 요소의 중복도를 기준으로 연어 목록을 뽑기로 한다. 『연어전자사전』에 수록된 연어 중에서 10번 이상 나타난 연어핵과 연어변을 정리해 보았다.

■ 『연어전자사전』에 수록된 연어핵과 연어변[13]

연어핵	마음(25) 머리(14)	몸(18) 얼굴(13)	가슴(16)	눈(15)
연어변	나다(110)	있다(97)	들다(80)	없다(61)
	되다(49)	가다(36)	오다(36)	좋다(32)
	지다(29)	서다(26)	빠지다(22)	떨어지다(20)
	일다(20)	터지다(20)	끼다(19)	높다(19)
	돌다(19)	생기다(19)	풀리다(17)	나쁘다(16)
	걸리다(15)	크다(15)	세다(14)	깊다(14)

12) 범기혜, 앞의 글에서는 연어를 구성하는 두 어휘가 서로 선택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선택 관계에 있어서는 두 어휘가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주술관계 연어, 목술관계 연어, 그리고 부술관계 연어의 연어핵과 연어변을 구분하기 위해 대조언어학적인 방법을 도입해서 한국어와 외국어를 대조할 때 대응 관계가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는 명사를 연어핵으로, 대응 관계가 비교적 어렵게 이루어지는 동사와 형용사를 연어변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수식관계 연어의 경우 피수식어를 연어핵으로 보고, 병렬관계 연어와 선후관계 연어는 연어핵과 연어변의 구분이 없다고 보고 있다.

13) 괄호 안에 중복된 획수를 표시하였다.

	붙다(14)	약하다(13)	일어나다(12)	벌어지다(12)
	많다(11)	내리다(11)	치다(10)	치밀다(10)
	오르다(10)	열리다(10)	심하다(10)	맞다(10)
	돋다(10)			

연어핵은 모두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구체 명사인 데다가 중복도가 연어변에 비하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연어변을 기준으로 본고의 연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자주 나타나는 연어변 중에서 형용사[14](있다, 없다, 좋다, 높다, 나쁘다, 크다, 세다, 깊다, 약하다, 많다, 심하다)와 생각 또는 감정의 발생을 나타내지 않는 동사(지다, 빠지다, 떨어지다, 끼다, 돌다, 풀리다, 걸리다, 벌어지다, 내리다, 치다, 열리다, 맞다)를 빼면 총 14개의 동사(나다, 들다, 되다, 가다, 오다, 서다, 일다, 터지다, 생기다, 붙다, 일어나다, 치밀다, 오르다, 돋다)가 남게 된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한국어 학습용 웹사전인 『한국어기초사전』에서 이 동사들의 의미를 찾아봤는데 모두 생각 또는 감정의 발생을 나타내는 의미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15] 각 동사의 의미항에 해당되는 연어를 『한국어기초사전』, 『연어전자사전』, 그리고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연어사전』(이하 『한국어연어사전』으로 칭함)[16]등 3가지 사전에서 확인한 후에 그 연어핵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연어변의 의미항과 연어핵

연어변	연어변의 의미	연어핵			
가다[17]	관심이나 눈길이 어떤 대상에 끌리다.	관심(3)	동정(3)	마음(2)	신경(2)
		심증(3)	애정(3)	정(3)	호감(3)
		애착(2)	정감(1)	친밀감(1)[18]	

14) 연어변이 형용사인 주술관계 연어는 중국어로 옮길 때 대부분 연어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본고의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5) 본고에서 『한국어기초사전』을 주로 활용하는 것은 웹사전으로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한국어 학습자 맞춤형 사전으로서 학습에 필요한 5만 항목 어휘를 수록하면서 선정 어휘를 쉽게 풀이했을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자주 쓰는 예문을 구, 문장, 대화 형태로 풍부하게 제시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사용된 사전적 의미와 예시는 주로 『한국어기초사전』의 뜻풀이와 용례에 따른다.

16) 『한국어연어사전』에 '돋다', '되다', '일다', '치밀다', '터지다'의 표제어가 없어서 확인이 불가능했다.

	어떤 것에 대해 생각이나 이해가 되다.	공감(3)	구별(3)	구분(2)	납득(3)
		믿음(3)	분간(2)	상상(3)	실감(2)
		수긍(3)	의문(2)	의심(2)	이해(3)
		짐작(3)	의혹(2)	신뢰(1)	확신(1)
나다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생기다.	겁(3)	골(1)	샘(3)	성(3)
		신(3)	신경질(3)	신명(3)	실감(3)
		싫증(3)	심술(2)	안달(3)	엄두(3)
		오기(3)[19]	용기(3)	울음(2)	웃음(2)
		짜증(3)	탐(3)	혼(2)	화(3)
		힘(2)	흥미(1)	질투(2)	감질(1)
		강짜(1)	성화(1)	신물(1)	신바람(1)
		심통(1)	심화(1)	역정(1)	역증(1)
		열화(1)	염증(1)	욕심(1)	욱기(1)
		울화(1)	재미(1)	정분(1)	조바심(1)
		지각(1)	진저리(1)	화딱지(1)	흥(1)
		몸서리(1)	뿔(1)	부아[20]	
	생각이나 기억 등이 떠오르다.	기억(3)	꾀(2)	마음(2)	생각(3)
		수(2)	정신(3)	의심(1)	철(1)
돋다	어떤 감정이나 기색이 표정이나 목소리 등에 나타나다.	부아(1)	역정(1)	짜증(1)	화(1)
		뿔(1)			
되다	어떠한 심리적인 상태에 있다.	각오(1)	걱정(1)	안심(1)	위로(1)
		위안(1)			
들다[21]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생기다.	느낌(3)	생각(3)	수치심(1)	예감(3)
		잡념(2)	정(3)	행복감(1)	의심(3)
		정신(2)[22]	각오(1)	거부감(2)	걱정(2)
		무력감(1)	반발심(1)	반항심(1)	심정(2)
		오기(1)	위기감(1)	위화감(1)	의구심(2)
		의무감(1)	의아심(1)	의혹(1)	자책감(1)
		정분(1)	정성(1)	죄책감(1)	주눅(2)
		지각(1)	짐작(1)	착각(2)	철(1)
		청량감(1)	친근감(2)	후회(1)	마음(1)
		아쉬움(1)	판단(1)	기분(1)	의문(1)
		자괴감(1)	회의(1)		
붙다[23]	어떤 감정이나 감각이 생기다.	애착(1)	재미(2)	정(3)	취미(1)
		힘(1)			
생기다[24]	없던 것이 새로 있게 되다.	앙금(1)	의문(2)	의심(1)	의욕(2)
		자신(2)	갈등(1)	고민(1)	공감대(1)
		관심(1)	긴장(1)	마음(1)	불만(1)
		식욕(1)	여유(1)	오해(1)	욕심(1)
		자신감(1)	책임감(1)	충동(1)	친밀감(1)

		호기심(1) 희망(1)	혼동(1) 힘(1)	회의(1)	흥미(1)
서다	계획이나 결심, 자신감 등이 생겨 마음이 정해지다.	결심(3) 확신(3) 타산(1) 자신(1)	결의(1) 마음(1) 대책(1) 전망(1)	계획(3) 각오(2) 방도(1)	판단(3) 계책(2) 방침(1)
오다[25]	누구에게 무엇이 느껴지거나 떠오르다.	감(3) 직감(1)	느낌(2) 감정(1)	영감(2)	의미(1)
오르다	어떤 감정이나 기운이 퍼지다.	부아(1) 분(1)	분노(1) 신명(1)	약(1)	화(2)
일다[26]	희미하거나 약하던 것이 왕성해지다.	열정(1) 두려움(1)	충동(1) 욕정(1)	감흥(1) 질투심(1)	공포심(1) 흥(1)
일어나다	어떤 감정이나 마음이 생기다.	경계심(1) 충동(1) 식욕(1) 호기심(1)	욕심(3) 화(1) 욕망(1)	의구심(1) 반항심(2) 느낌(1)	짜증(1) 갈등(2) 마음(1)
치밀다	욕심, 분노, 슬픔 등이 세차게 북받쳐 오르다.	분노(2) 화(2) 오기(1)	부아(2) 슬픔(1) 울분(1)	울음(1) 역증(1)	울화(2) 열화(1)
터지다[27]	속으로 참았거나 쌓였던 감정이 북받쳐 나오다.	분노(1) 화(1)	분통(2)	불만(1)	울화(2)

17) ‘눈길이 가다’, ‘눈이 가다’, ‘시선이 가다’도 관심이 어떤 대상에 끌린다는 의미를 나타내지만 ‘눈길’, ‘눈’, ‘시선’ 자체가 생각 또는 감정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외하기로 한다. 만약 포함시킨다면 ‘눈물이 나다’, ‘진땀이 나다’ 등 사람 심리를 나타내는 다수의 연어도 포함시켜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18) 『한국어연어사전』에서 ‘친밀감’을 ‘짐작 따위가 되다’의 의미항 밑에 수록하였는데 사실 ‘관심이 쏠리다’의 의미와 더 가까운 것 같아서 바꿔 놓았다.

19) 『한국어연어사전』에서 ‘오기’를 ‘생각, 기억이 떠오르다’의 의미항 밑에 수록하였는데 여기서는 『한국어기초사전』에 따라서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생기다’의 의미항 밑에 제시하였다.

20) 사전에 수록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가능하고 논의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어핵을 따로 추가하였다.

21) ‘들다’의 의미 중에 ‘어떤 것이 좋게 생각되다’도 생각 또는 감정과 관련되지만 여기에 속한 연어들은 ‘눈에 들다’, ‘마음에 들다’ 등과 같이 주술관계 연어가 아니라 부술관계 연어이기 때문에 제외하기로 한다.

22) 『한국어기초사전』에서 ‘정신이 들다’를 ‘의식이 돌아오다’의 의미항 밑에 수록하였지만 『한국어연어사전』에서는 ‘생각이나 느낌이 생기다’의 의미항 밑에 수록하였다. 본고도 후자에 따라서 ‘정신’을 목록에 포함시켰다.

23) 『한국어연어사전』에서 ‘정이 붙다’ 등 연어를 ‘어떤 것이 생기거나 더해지다’의 의미항 밑에 수록하였다.

『한국어기초사전』에 수록된 연어의 경우 밑줄로 표시하였고 앞의 세 가지 사전에 수록된 총 횟수를 괄호 속에 숫자로 표시하였다. 『한국어기초사전』에 수록되었다는 것은 외국인이 한국어를 학습하는 데에 꼭 필요한 기초 연어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세 가지 사전에 수록된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용 빈도가 높은 고빈도 연어로 간주될 수 있다. 본고는 이 세 가지 사전에 한 번 이상 수록된 연어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지만 이 목록을 폐쇄 목록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사전에 수록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가능한 표현들이 더 존재할 것이다. 단, 본고는 통계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언어학적인 방법으로 논의를 전개하기 때문에 고빈도 기초 연어를 비교적 많이 반영한 이 목록을 활용하게 되었다.

4. 연어 구성 요소의 선택 제약

심리 변화를 나타내는 연어 중에서 연어핵이 한자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리 특히 생각과 관련된 낱말 중에서 한자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고유어 또는 혼종어의 연어핵은 대부분 감정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28] 중복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24) '생기다' (①없던 것이 새로 있게 되다. ②자기의 것이 아니던 것이 자기의 것으로 되다. ③사고나 일, 문제 등이 일어나다. ④사람이나 사물의 생김새가 어떠한 모양으로 되다.)의 의미 중에 생각 또는 감정과 직접 관련된 의미가 없으나 '없던 것이 새로 있게 되다'의 기본의미가 비교적 포괄적이어서 어떤 생각 또는 감정이 새로 있게 된다는 의미로도 사용 가능하므로 표에 같이 포함시켰다.

25) '오다'의 의미 중에 '관심, 눈길 등이 누구에게 쏠리다'의 의미가 있지만 '오다'의 방향성 때문에 화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심리적 변화라는 점을 고려하여 제외하기로 한다.

26) '일다'(①어떤 현상이나 사건이 생기다. ②희미하거나 약하던 것이 왕성해지다. ③겉으로 부풀거나 위로 솟아오르다.)의 의미 중에 생각 또는 감정과 직접 관련된 의미가 없으나 '희미하거나 약하던 것이 왕성해지다'의 의미가 비교적 포괄적인데다가 '열정이 일다', '충동이 일다'의 예가 들어 있어 그 의미를 표에 포함시켰다.

27) '터지다'의 의미 중에 '근심이나 걱정으로 마음이 괴롭다'의 의미도 있는데 거기에 '가슴이 터지다', '마음이 터지다', '속이 터지다'가 수록되어 있다. 각주 1)에서 설명했듯이 '가슴, 마음, 속' 자체에 생각 또는 감정의 의미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본고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박수, 웃음, 울음, 소리 등이 갑자기 한꺼번에 나다'의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웃음이 터지다', '울음이 터지다'가 수록되어 있다. '웃음이 나다', '울음이 치밀다'와 달리 웃음소리 또는 울음소리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역시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연어핵의 어원별 연어 현황

연어핵의 어원	총 개수	생각	감정
고유어	35	11	24
한자어	121	88	33
혼종어	4	0	4

대부분의 연어변은 주로 한자어와 결합하지만 '나다', '돋다', '붙다', '오르다'는 고유어와도 결합하는 양상을 많이 보이고 있다. 특히 '나다'의 경우 총 54개의 연어핵과 결합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 한자어는 26개, 고유어는 24개, 혼종어는 4개로 비교적 특이한 양상을 보였다. 전체 35개의 고유어 연어핵 중 대다수가 '나다'와 결합할 수 있다. '가다'는 두 개의 고유어, '되다, 오다, 서다, 일다'는 각각 한 개의 고유어와 결합하는 것으로 매우 제한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고 '터지다'는 한자어와만 결합하는 것으로 어원의 제약을 받고 있다.

고유어 연어핵 중에서 가장 생산적인 연어핵은 '마음'이다. '마음이 가다', '마음이 나다', '마음이 들다', '마음이 생기다', '마음이 서다', '마음이 일어나다'가 모두 가능한 표현이다. 그 외에 '느낌, 부아, 짜증, 힘'은 세 개의 연어변, '걱정, 뿔, 생각, 신명, 울음, 재미, 철' 등은 각각 두 개의 연어변과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머지 23개의 연어핵은 오직 하나의 연어변과 결합할 수 있고 그중에서 '주눅'은 '들다'와만 같이 사용될 수 있는 단일 결합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자어 연어핵 중에서 가장 생산적인 연어핵은 '화'이다. '화가 나다', '화가 돋다', '화가 오르다', '화가 일어나다', '화가 치밀다', '화가 터지다'가 모두 가능한 표현이다. 그 외에 '의심'은 네 개의 연어변, '각오, 분노, 오기, 욕심, 울화, 의문, 정, 충동' 등은 각각 3개의 연어변과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머지 111개의 한자어가 한 개 또는 두 개의 연어변과 결합할 수 있다.

28) '긴장', '불만', '감흥', '동정', '질투', '자신감' 등처럼 생각의 의미를 나타내는지 감정의 의미를 나타내는지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그 낱말의 사전적 의미에 주로 근거를 두었다. 뜻풀이에 '여기다', '생각하다', '믿다' 등 낱말이 있는 경우 대체로 생각의 의미로, 그 반대의 경우 감정의 의미로 분류하였다.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연어핵들은 주로 '가다, 붙다, 서다, 오다'와 결합하고,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연어핵들은 주로 '나다, 돋다, 오르다, 일다, 일어나다, 치밀다, 터지다'와 결합한다. 그 이외에 '되다, 들다, 생기다'는 긍정적 의미 또는 부정적 의미를 가진 연어핵과 모두 잘 어울리는 것으로 의미 색채에 있어서 제약을 받지 않는다.

생각을 나타내는 연어핵들은 주로 '가다, 서다, 되다, 들다, 생기다'와 결합하고, 감정을 나타내는 연어핵들은 주로 '나다, 돋다, 붙다, 오다, 오르다, 일다, 일어나다, 치밀다, 터지다'와 결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은 연어변과 연어핵을 각각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선택 제약을 구체적으로 밝혀보도록 한다.

1) 연어변에 따른 제약

연어변 자체의 의미에 따라 연어변이 선택되거나 선택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가다'의 사전적 의미를 먼저 살펴본다.

⑥ 가다:
ㄱ. 관심이나 눈길이 어떤 대상에 끌리다.
→ 지수는 인상이 좋아서 보면 볼수록 호감이 간다.
→ 사장님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자 직원들의 눈길이 모두 사장님에게로 갔다.
ㄴ. 어떤 것에 대해 생각이나 이해가 되다.
→ 모범생이던 민준이가 수업을 빠지고 노래방에 간다는 건 상상이 안 간다.
→ 승규는 영화 내용이 너무 복잡해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 누나의 설명을 듣고 그제서야 이해가 갔다.

'가다'의 두 가지 의미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요소는 대상이다. 예문을 보면 항상 '-에(에게) -이(가) 가다'의 형식으로 쓰이지 않더라도 문장 안에 '가다'의 대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정이 가다'와 '정이 들다'는 의미가 비슷하지만 전자는 정이 드는 대상인 누군가가 꼭 존재해야 한다는 함축적 의

미가 있는 반면 후자는 그런 의미가 비교적 약하다. ‘의심이 가다’와 ‘의심이 나다’의 차이도 이와 비슷하다. 따라서 ‘가다’는 대상이 상정되기 힘든 연어핵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다음 예들은 그런 경우이다.

⑦ ㄱ. 생각이 들다, 기억이 나다, 직감이 오다, 욕심이 나다
ㄴ. *생각이 가다, *기억이 가다, *직감이 가다, *욕심이 가다

한편 공감의 의미를 가진 연어핵들은 다른 연어변과 어울리지 못하고 ‘가다’와만 결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상이 있어야 공감할 수 있는 것이 ‘가다’의 함축적 의미와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공감이 가다’, ‘동정이 가다’, ‘납득이 가다’, ‘수긍이 가다’ 등이 있다.

‘가다’의 두 번째 의미에 이해와 같이 논리적 사고라는 요소도 들어 있다. 분별의 의미를 가진 연어핵들은 역시 다른 연어핵과 어울리지 못하고 ‘가다’와만 결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분별하기 위해 논리적 사고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구별이 가다’, ‘구분이 가다’, ‘분간이 가다’ 등이 있다.

다음은 ‘나다’와 ‘들다’를 살펴본다. ‘나다’와 ‘들다’는 기본 의미가 서로 반대되는 낱말이다.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기본 의미를 살펴본다.

⑧ ㄱ. 나다: 피부 표면이나 땅 위로 솟다.
ㄴ. 들다: 밖에서 안으로 가거나 오다.

따라서 ‘생각이 나다, 의심이 나다, 오기가 나다’의 경우는 머릿속에 있던 생각이나 감정이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고 ‘생각이 들다, 의심이 들다, 오기가 들다’의 경우는 머릿속에 없던 것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화나거나 짜증 나는 감정은 마음속에서 밀려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들다’보다는 ‘나다’와 잘 어울린다. 또는 ‘실감이 나다’는 되지만 ‘행복감, 거부감, 무력감, 위기감, 위화감, 의무감, 자책감, 죄책감, 청량감, 친근감’ 등 구체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연어핵들은 ‘들다’와만 어

울린다. 한편 '욕심이 나다'는 되지만 '욕심이 들다'가 좀 어색한 것은 사람 누구나 마음속 깊이 욕심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밖으로 내보이느냐 않느냐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서다'의 뜻풀이는 매우 구체적이어서 그 자체가 선택 제약을 보여주고 있다.

⑨ 서다: 계획이나 결심, 자신감 등이 생겨 마음이 정해지다.

'서다'는 '계획, 결심, 자신감'을 나타내는 연어핵과만 결합할 수 있고 '마음이 정해진다'는 결과가 함축되어 있다. 따라서 결정의 의미를 가진 '결심, 결의, 판단, 확신, 타산' 등 연어핵과 잘 어울리고 '의심, 의문, 상상, 짐작' 등 마음을 정하기 힘든 경우에는 제약을 받는다.

'오다'는 화자에게 없던 것이 화자에게 가까워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생각이나 스스로 일어나는 감정보다는 어느 날 갑자기 화자한테 찾아오는 새롭고 색다른 느낌을 표현할 때 적합하다. 예를 들면, '감이 오다, 영감이 오다, 느낌이 오다' 등이 있다.

'일다'와 '일어나다'는 둘 다 '약하던 것이 강해지거나 적었던 것이 많아진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잘 어울린다. 예를 들면, '열정, 욕심, 두려움' 등이 있다. 한편 '안심, 실감, 각오' 등과 같이 양으로 규정하기 힘든 경우에는 제약을 받는다.

'치밀다'와 '터지다'에는 모두 '북받치다'의 의미가 들어 있어 주로 격하고 좋지 않은 감정을 나타내는 데에 쓰인다. 따라서 '화, 분노, 울화, 부아, 분통' 등 '화'와 관련된 연어핵과 잘 어울린다.

'돋다'와 '오르다'는 모두 어떤 감정이 밖으로 표출된다는 공통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주로 화나는 감정을 나타내는 연어핵과 잘 어울린다. '붙다'는 '무엇이 어디에 닿아 떨어지지 않다'의 기본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애착, 재미, 정' 등과 같이 사람에 달라붙는 것처럼 느껴지는 극히 제한적인 연어핵과만 결합한다. 한편 '되다'와 '생기다'는 사전적 의미가 매우 포괄적이어서 연어핵에 대한 제약이 거의 없다. 본고에서 정리한 연어 목록 이외에도 '되

다'는 '하다' 동사의 어근과 많이 결합할 수 있고 '생기다'는 추상명사뿐만 아니라 구체명사와도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다.[29]

2) 연어핵에 따른 제약

(1) 연어핵이 의미적으로 비슷한 경우

연어변의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연어핵과의 결합 관계를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어핵이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다음은 눈에 띄는 유의어를 의문, 분노, 호감, 욕심, 질투, 공포, 불만, 신명 등 여덟 개의 부류로 나눠서 분석함으로써 연어핵에 따른 제약도 존재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30]

연어핵 중에서 의문에 관한 유의어는 '의심, 의문, 의혹, 의구심, 의아심' 총 5개이다. 이들의 연어 구성 양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의문에 관한 유의어(연어핵)의 연어 구성 양상

	가다	나다	들다	일어나다	생기다
의심	○	○	○	×	○
의문	○	×	○	×	○
의혹	○	×	○	?	?
의구심	×	?	○	○	?
의아심	?	?	○	?	?

위 표에서 '○'로 표시한 것은 본고의 연어 목록에 들어 있는 경우이고, '?'로 표시한 것은 연어 목록에는 없지만 실제로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는 경우이며, '×'로 표시한 것은 목록에도 없고 실제 쓰임도 거의 보이지 않는 경우이다.[31]

29) '생기다'는 비교적 많은 연어핵과 결합할 수 있지만 전혀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단일 연어 구성(고정 표현)은 물론 '*신경질이 생기다', '*짐작이 생기다', '*울음이 생기다' 등 많은 경우에 제한을 받고 있다. 단지, 본고에서 논의하는 선택 제약을 많이 안 받기 때문에 가볍게 논의하게 되었다. 추후 다른 논문으로 더 깊이 파헤치기로 한다.

30) 같은 연어가 연어핵에 따른 제약과 연어변에 따른 제약에 모두 제시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연어들은 연어핵과 연어변 모두에 의해 제약된다고 보는 입장을 취한다.

의문에 관한 유의어들은 주로 '가다, 나다, 들다, 일어나다, 생기다' 등 연어변과 결합해서 쓰인다. 이 중에서 연어핵 '의아심'과 연어변 '들다'가 가장 자유로운 결합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자는 5개의 연어변, 후자는 5개의 연어핵과 모두 결합할 수 있다. '가다'는 이음절 한자어인 '의심, 의문, 의혹'과 주로 결합해서 쓰이고 삼음절 한자어와는 잘 안 어울린다. '나다'는 생산적으로 사용되는 연어변인데도 불구하고 '의심, 의구심, 의아심'과만 결합할 수 있다. '마음(心)'이 들어 있어 안에서 밖으로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의구심'은 의심 이외에 '두렵다(懼)'는 의미, '의혹'은 '궁금하다(惑)'의 의미, '의아심'은 '놀랍다(訝)'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정도의 차이를 주로 나타내는 '일어나다'와 잘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어핵 중에서 분노에 관한 유의어는 '화, 성화, 심화, 울화, 화딱지, 부아, 분노, 분, 분통, 뿔, 골, 성, 역정, 역증, 열화' 등 총 15개이다. 이들의 연어 구성 양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분노에 관한 유의어(연어핵)의 연어 구성 양상

	나다	돋다	오르다	일어나다	치밀다	터지다
화	○	○	○	○	○	○
성화	○	×	×	×	?	×
심화	○	×	×	×	×	×
울화	○	×	×	×	○	○
화딱지	○	×	×	×	?	×
부아	○	○	○	×	○	×
분노	×	×	○	?	○	○
분	×	×	○	×	?	?
분통	×	×	×	×	?	○
뿔	○	○	×	×	×	×
골	○	×	×	×	×	×
성	○	×	×	×	×	×
역정	○	○	×	×	?	×
역증	○	×	×	×	○	×
열화	○	×	×	×	○	×

31) 검색할 때 사용되는 코퍼스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고는 주로 인터넷 검색에 의해 실현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대형 코퍼스를 통해 확인하는 작업은 추후의 다른 연구를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다.

분노에 관한 유의어들은 주로 ‘나다, 돋다, 오르다, 일어나다, 치밀다, 터지다’ 등 연어변과 결합해서 쓰인다. 선택 제약을 거의 안 받는 ‘생기다’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연어핵 ‘화’와 연어변 ‘나다’가 가장 자유로운 결합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자는 전체 6개의 연어변, 후자는 ‘분노, 분, 분통’을 제외한 나머지 12개의 연어핵과 결합할 수 있다.

연어핵들의 사전적 의미에 근거해서 분노의 강도를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⑩ ㄱ. 몹시 화나는 감정: 부아, 분노, 분, 분통
ㄴ. 화나는 감정: 화, 골, 성화, 심화, 울화, 화딱지, 역정, 역증, 열화
ㄷ. 언짢고 불쾌한 감정: 성, 뿔

‘몹시 화나는 감정’을 나타내는 연어핵들은 주로 ‘오르다, 치밀다, 터지다’와 결합하는 반면 ‘언짢고 불쾌한 감정’을 나타내는 연어핵들은 이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중간 단계의 연어핵 중에서 ‘성화, 화딱지, 역정, 역증, 열화’는 ‘치밀다’와 결합할 수 있어도 ‘터지다’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나다’는 다수의 연어핵과 결합할 수 있지만 ‘몹시 화나는 감정’을 나타내는 연어핵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부아’는 고유어로서 특수성을 보였다. ‘나다’와 결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제한적으로 쓰이는 ‘돋다’와도 결합할 수 있다. 한편 ‘터지다’와 결합할 수 없는 것은 고유어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분노의 강도가 중간 단계에 가깝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돋다’는 분노의 강도와 상관없이 세 단계의 연어핵과 모두 결합할 수 있는 양상을 보였지만 쓰임이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분통’의 경우 ‘분노’ 이외에 ‘쓰리다(痛)’의 의미도 들어 있어 ‘분, 분노’와 달리 ‘오르다’와 어울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울화’의 경우 ‘답답하다(鬱)’의 의미가 들어 있어 다른 중간 단계의 연어핵과 달리 ‘치밀다, 터지다’와 모두 결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연어핵 중에서 호감에 관한 유의어는 ‘관심, 애정, 정, 호감, 애착, 정감, 친밀감, 정분, 친근감’ 등 총 9개이다. 이들의 연어 구성 양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호감에 관한 유의어(연어핵)의 연어 구성 양상

	가다	나다	들다	붙다	생기다
관심	○	×	×	×	○
애정	○	×	×	×	?
정	○	×	○	○	?
호감	○	×	×	×	?
애착	○	×	×	○	?
정감	○	×	×	×	×
정분	×	○	○	×	×
친밀감	○	×	?	×	○
친근감	?	×	○	×	?

호감에 관한 유의어들은 주로 '가다, 나다, 들다, 붙다, 생기다' 등 연어변과 결합해서 쓰인다. 이 중에서 연어핵 '정'과 연어변 '가다'가 가장 자유로운 결합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자는 4개의 연어변, 후자는 8개의 연어핵과 결합할 수 있다. '나다'와 '들다'는 고빈도 연어변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제한적인 쓰임을 보였다. 그리고 '가다'와 '나다'가 상보적인 결합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즉 9개의 유의어 중에서 '정분'만이 '가다'와 결합할 수 없고 또 '정분'만이 '나다'와 결합할 수 있다. '정분이 나다'와 '정분이 들다'가 모두 가능하다는 것도 재미있는 현상이다. 한편 '정이 들다'는 가능하지만 '*정이 나다'는 불가능하다. '들다'가 '감'으로 끝나는 삼음절 연어핵인 '친밀감, 친근감'과도 결합이 가능하다는 것은 '느낌이 들다'의 표현이 먼저 존재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붙다'의 경우 '정' 이외에 '애착'과만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은 '애착'에 '붙다(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기다'는 '정'으로 시작하는 이음절 연어핵인 '정감, 정분'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어핵 중에서 욕심에 관한 유의어는 '탐, 의욕, 욕심, 식욕, 욕망, 욕정' 등 총 6개이다. 이들의 연어 구성 양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욕심에 관한 유의어(연어핵)의 연어 구성 양상

	나다	생기다	일어나다	일다
탐	○	×	×	×
의욕	?	○	×	×
욕심	○	○	○	×
식욕	?	○	○	?
욕망	×	?	○	?
욕정	×	?	?	○

욕심에 관한 유의어들은 주로 '나다, 생기다, 일어나다, 일다' 등 연어변과 결합해서 쓰인다. 이 중에서 연어핵 '식욕'과 연어변 '생기다'가 가장 자유로운 결합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자는 4개의 연어변, 후자는 5개의 연어핵과 결합할 수 있다. 일음절 한자어인 '탐'은 '생기다'뿐만 아니라 '나다'를 제외한 다른 동사와 모두 선택 제약을 보인다. 그리고 '나다'와 '일다'가 상보적인 결합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나다'와 결합할 수 있는 '탐, 의욕, 욕심'은 '일다'와 결합할 수 없고, '일다'와 결합할 수 있는 '욕망, 욕정'은 '나다'와 결합할 수 없다. '일어나다'는 '일다'의 경우와 비슷한데 '욕심이 일어나다'가 가능하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연어핵 중에서 질투에 관한 유의어는 '샘, 강짜, 질투, 질투심' 등 총 4개이다. 이들의 연어 구성 양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질투에 관한 유의어(연어핵)의 연어 구성 양상

	나다	일다
샘	○	×
강짜	○	×
질투	○	?
질투심	?	○

질투에 관한 유의어들은 주로 '나다, 일다' 등 두 개의 연어변과 결합해서 쓰인다. '나다'는 모든 연어핵과 잘 어울려서 쓰이지만 '일다'는 한자어 연어핵인 '질투, 질투심'과만 결합할 수 있다.

연어핵 중에서 공포에 관한 유의어는 '겁, 진저리, 몸서리, 공포심, 두려움,

경계심' 등 총6개이다. 이들의 연어 구성 양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공포에 관한 유의어(연어핵)의 연어 구성 양상

	나다	일다	일어나다
겁	○	×	×
진저리	○	×	×
몸서리	○	×	×
공포심	×	○	?
두려움	×	○	?
경계심	×	?	○

공포에 관한 유의어들은 주로 '나다, 일다, 일어나다' 등 연어변과 결합해서 쓰인다. '나다'와 '일다, 일어나다'가 상보적인 관계를 완벽히 이루고 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나다'와 결합할 수 있는 '겁, 진저리, 몸서리'는 '일다, 일어나다'와 결합할 수 없고, '일다, 일어나다'와 결합할 수 있는 '공포심, 두려움, 경계심'은 '나다'와 결합할 수 없다.

연어핵 중에서 불만에 관한 유의어는 '짜증, 신경질, 싫증, 심술, 안달, 감질, 신물, 심통, 염증, 앙금, 불만, 약' 등 12개이다. 이들의 연어 구성 양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불만에 관한 유의어(연어핵)의 연어 구성 양상

	나다	돋다	일어나다	생기다	터지다	오르다
짜증	○	○	○	?	×	×
신경질	○	?	?	×	?	×
싫증	○	×	?	?	×	×
심술	○	?	×	?	×	?
안달	○	×	×	?	×	×
감질	○	×	×	×	×	×
신물	○	×	×	×	×	×
심통	○	×	×	×	?	×
염증	○	×	?	×	×	×
앙금	×	×	×	○	?	×
불만	×	×	?	○	○	×
약	×	×	×	×	×	○

불만에 관한 유의어들은 주로 '나다, 돋다, 일어나다, 생기다, 터지다, 오르다' 등 연어변과 결합해서 쓰인다. 이 중에서 연어핵 '짜증, 신경질, 심술'과 연어변 '나다'가 가장 자유로운 결합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자는 4개의 연어변, 후자는 9개의 연어핵과 결합할 수 있다. '나다'를 제외한 다른 연어변들은 소수의 연어핵과 결합할 수 있는 매우 제한적인 결합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오르다'는 '약이 오르다, 심술이 오르다' 등 두 개의 연어만 구성해서 쓰일 수 있다. 한편으로 연어핵 '감질(감질이 나다), 신물(신물이 나다), 약(약이 오르다)'은 단 하나의 연어변과 결합할 수 있는 단일 결합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어핵 중에서 신명에 관한 유의어는 '신, 신명, 신바람, 흥, 감흥' 등 총 5개이다. 이들의 연어 구성 양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신명에 관한 유의어(연어핵)의 연어 구성 양상

	나다	오르다	일다
신	○	×	×
신명	○	○	×
신바람	○	×	?
흥	○	?	○
감흥	×	×	○

신명에 관한 유의어들은 주로 '나다, 오르다, 일다' 등 연어변과 결합해서 쓰인다. 이 중에서 연어변 '나다'가 4개의 연어핵과 어울리는 것으로 가장 자유로운 결합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연어핵 '신(신이 나다), 감흥(감흥이 일다)'은 단 하나의 연어변과 결합할 수 있는 단일 결합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다'는 '흥(興)'이 들어 있는 낱말과 잘 어울리지만 '신바람이 일다'의 표현도 간혹 볼 수 있다. '바람이 일다'의 영향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오르다'는 '신명이 오르다'와 '흥이 오르다'만 가능한 것으로 제한적인 결합 양상을 보인다.

(2) 연어핵이 형태적으로 비슷한 경우

연어핵 중에서 '심'과 '감'으로 끝나는 낱말들이 눈에 띌 정도로 많았다.[32] 이것은 생각 또는 감정을 나타내는 주술관계 연어 중에서 '마음'과 '느낌' 이

두 가지 연어핵이 고빈도로 사용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연어핵이 형태적으로 비슷한 경우 규칙적인 결합 양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예외도 있기 마련이다. 다음은 이 두 가지 부류의 연어핵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도록 한다.

'심'으로 끝나는 이음절 연어핵은 '관심, 의심, 욕심, 안심, 결심' 등 5개이고, 삼음절 연어핵은 '조바심, 수치심, 반발심, 반항심, 의구심, 의아심, 호기심, 공포심, 질투심, 경계심' 등 10개이다. 이들의 연어 구성 양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심'으로 끝나는 연어핵의 연어 구성 양상

	가다	나다	들다	생기다	일어나다	되다	서다	일다
마음	○	○	○	○	○	×	○	?
관심	○	×	×	○	?	×	×	?
의심	○	○	○	○	?	?	×	?
욕심	×	○	?	○	○	×	×	?
안심	?	×	?	×	×	○	×	×
결심	×	×	?	?	×	?	○	?
조바심	×	○	?	?	?	×	×	?
수치심	×	?	○	?	?	×	×	?
반발심	×	?	○	?	?	×	×	?
반항심	×	×	○	?	○	×	×	?
의구심	×	×	○	?	○	×	×	?
의아심	×	?	○	?	?	×	×	?
호기심	?	?	?	○	○	×	×	?
공포심	×	?	?	?	?	×	×	○
질투심	×	?	?	?	?	×	×	○
경계심	×	×	?	?	○	×	×	?

'심'으로 끝나는 연어핵들은 주로 '가다, 나다, 들다, 생기다, 일어나다, 되다, 서다, 일다' 등 연어변과 결합해서 쓰인다. 이 중에서 연어핵 '의심'과 연어변 '들다, 생기다, 일다'가 가장 자유로운 결합 양상을 보인다. 전자는 7개의 연어변, 후자는 14개의 연어핵과 결합할 수 있다. '서다'는 '결심이 서다'에서만 사용되고 다른 연어핵과의 결합에는 제한을 받는다. 연어핵 '결심'이

32) '심' 또는 '감'으로 끝나는 낱말들은 의미적으로도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그 이유가 형태적 유사성에 있다고 보고 이런 경우를 연어핵이 형태적으로 비슷한 경우로 보았다.

바로 '마음이 서다'의 의미를 뜻하기 때문에 결정의 의미를 지닌 '서다'와 잘 맞아떨어진다. 한편 '의심'은 결정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서다'와 어울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되다'는 '하다' 동사의 어근인 '의심, 안심, 결심'과만 결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칙적인 결합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다'는 주로 '관심이 가다'와 '의심이 가다'에서 쓰이지만 '안심이 가다', '호기심이 가다'의 표현도 간혹 볼 수 있다. 하지만 대상이 있을 법하기도 한데 '*욕심이 가다, *질투심이 가다, *경계심이 가다'의 표현은 불가능하다. 한편 '안심'은 '걱정 없이 마음 편히 가짐'을 뜻하는 명사이지만 동사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나다, 생기다, 일어나다, 일다'와 결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심'은 '어떻게 하기로 굳게 마음을 정함. 또는 그런 마음'을 뜻하는데 명사성과 동사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생기다, 일다'와의 결합이 가능하다. '관심'은 '어떤 것을 향하여 끌리는 감정과 생각'을 뜻하는 명사이지만 '관심이 나다'와 '관심이 들다'가 불가능한 것은 한자 '關心' 자체에서 비롯된 동사성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음절 연어핵보다 삼음절 연어핵에서 더 규칙적인 결합 양상을 보이고 있다. '들다, 생기다, 일어나다, 일다'는 모든 삼음절 연어핵과 결합할 수 있고 '되다, 서다'는 모두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다'는 '호기심'을 제외한 나머지 연어핵, '나다'는 '반항심, 의구심, 경계심'과 선택 제약을 보인다.

'감'으로 끝나는 이음절 연어핵은 '호감, 정감, 공감, 실감, 예감, 영감, 직감' 등 7개이고, 삼음절 연어핵은 '친밀감, 행복감, 거부감, 무력감, 위기감, 위화감, 의무감, 자책감, 죄책감, 청량감, 친근감, 자괴감, 자신감, 책임감' 등 14개이다.

■ '감'으로 끝나는 연어핵의 연어 구성 양상

	가다	나다	들다	오다	생기다	일어나다
느낌	×	?	○	○	?	○
호감	○	×	×	×	?	×
정감	○	×	×	×	×	×
공감	○	×	?	×	?	?
실감	○	○	?	×	?	×
예감	○	?	?	×	?	?

영감	×	×	×	○	?	×
직감	×	×	?	○	×	×
친밀감	○	×	?	×	○	?
행복감	×	×	○	×	?	×
거부감	×	×	○	×	?	×
무력감	×	×	○	×	?	×
위기감	×	×	○	×	?	?
위화감	×	×	○	×	?	?
의무감	×	×	○	×	?	×
자책감	×	×	○	×	?	?
죄책감	×	×	○	×	?	×
청량감	×	×	○	×	×	×
친근감	?	×	○	×	?	?
자괴감	×	×	○	?	?	×
자신감	×	×	?	×	○	×
책임감	×	×	?	×	○	×

‘감’으로 끝나는 연어핵들은 주로 ‘가다, 나다, 들다, 오다, 생기다, 일어나다’ 등 연어변과 결합해서 쓰인다. 이 중에서 연어핵 ‘예감’과 연어변 ‘들다, 생기다’가 가장 자유로운 결합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자는 5개의 연어변, 후자는 18개의 연어핵과 결합할 수 있다. ‘들다’는 ‘하다’를 붙일 수 없고 동사성이 없는 이음절 한자어인 ‘호감, 정감, 영감’과 결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생기다’는 ‘호감’과 결합할 수 있지만 삼음절 한자어인 ‘청량감’과 결합할 수 없어서 특이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나다’는 ‘실감이 나다, 예감이 나다’, ‘오다’는 ‘영감이 오다, 직감이 오다, 자괴감이 오다’에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매우 제한적인 결합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다’는 대상이 상정될 수 있는 이음절 한자어의 다수와 삼음절 한자어인 ‘친밀감, 친근감’과 결합할 수 있는 규칙적인 결합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일어나다’는 ‘공감, 예감, 친밀감, 위기감, 위화감, 자책감, 친근감’ 등 이음절과 삼음절 연어핵과 골고루 결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감’으로 끝나는 연어핵 중에서도 이음절 연어핵보다 삼음절 연어핵이 더 규칙적인 결합 양상을 보이고 있다. ‘들다’는 모든 삼음절 연어핵과 결합할 수 있는 반면 ‘나다, 오다’는 모두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다’는 ‘친밀감,

친근감'을 제외한 나머지 연어핵, '생기다'는 '청량감'과 선택 제약을 보인다.

5. 맺음말

본고는 생각 또는 감정 등 심리 변화를 나타내는 주술관계 연어를 연구대상으로 삼았지만 그 대상의 외연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한 기준을 찾지 못했다. 또한 생각과 감정을 구분하기 힘든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분류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더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연어 위주로 검토했고 논의를 전개하면서 인터넷을 주로 이용해서 연어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였다. 필자의 부주의 또는 검색의 방법으로 인해 실제의 사용 양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추후에 말뭉치 검색과 모국어 화자에게 확인하는 등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연어 목록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연어핵과 연어변의 선택 제약을 분석적인 방법으로 많이 기술해 나갔지만 그것을 유형화시켜서 치밀하게 논의하지는 못했다. 선택 제약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연어핵과 연어변의 의미, 어원, 형태 등 여러 면에서 밝히려고 했지만 아직도 설명이 안 된 소위 관습에 의한 결합 양상이 많다. 또한 본 연구 결과가 한중 번역이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추후에 다른 논문을 통해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강현화, 「[체언+용언] 꼴의 연어 구성에 대한 연구」, 『사전편찬학 연구』 제8호, 연세대 언어정보개발원, 1997, 191-224면.
김기태, 「한국어 어휘적 연어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2014.
김진해, 「연어의 의미관계에 대하여」, 『한국어 의미학』 제4호, 한국어의미학회, 1999, 239-279면.
_____, 『연어 연구』, 한국문화사, 2000a.
_____, 「연어의 계열관계 연구」, 『국어학』 제35호, 국어학회, 2000b, 199-222면.
_____, 「연어관계의 제자리 찾기—국내외 이론적 논의에 대한 재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제37호, 한국어학회, 2007, 229-260면.
_____, 「연어 연구의 의미론적 함의—목록과 경향 사이에서」, 『국어학』 제68호, 국어학회, 2013, 189-223면.
김하수 외,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연어 사전』,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박진호, 「관용표현의 통사론과 의미론」, 『국어학』 제41호, 국어학회, 2003, 361-419면.
박진희, 「연어 제약에 대하여」, 『어문연구』 제3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83-105면.
범기혜, 「중국어와의 대조를 통해 본 한국어 연어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0.
석아남, 「한국어 연어와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 연구—주술·목술관계 연어를 중심으로」, 연변대학 석사학위논문, 2013.
유문명,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연어 구성 대조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17.
이동혁, 「국어 연어관계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4.
이비비, 「어휘함수를 이용한 한-중 연어 대조 연구—주술관계 연어를 중심으로—」, 국민대 석사학위논문, 2017.
임근석, 「현대국어의 어휘적 연어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2.
_____, 「한국어 연어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6.
_____, 「한국어 연어 연구의 전개와 쟁점에 대하여」, 『국어학』 제61호, 국어학회, 2011, 359-387면.
임홍빈, 「한국어 연어의 개념과 그 통사·의미적 성격」, 『국어학』 제39호, 국어학회, 2002, 279-314면.
한영균, 『학습용 기본명사 연어 빈도 사전』, 한국문화사, 2016.
홍재성 외,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 개발 연구보고서」(11-1370000-000089-14), 문화관광부·국립국어원, 2004.

【Abstract】

An analysis on the selective constraints of subject-predicate collocations expressing psychological changes

Fan, Qi-Hui*

In Korean collocations, verb-object collocations and subject-predicate collocations account for the largest proportion. In the process of translating verb-object collocations into Chines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re and the edge of collocation is basically unchanged, while subject-predicate collocations are not. Therefore, Chinese Korean learners have more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and learning subject-predicate collocations. The research object of this thesis is subject-predicate collocation which expresses psychological changes. The core of the collocations are abstract nouns which express thoughts or feelings. The edge of the collocations are verbs indicating the occurrence. In this study, I analyzed the selective constraints between the core and the edge of the collocations. I hope I can make a small contribution to the teaching of Korean collocation through this attempt.

Keywords: verb-object collocation, subject-predicate collocation, core of collocation, edge of collocation, selective constraint.

접수일: 2019.03.31. ‖ 심사일: 2019.04.10. ‖ 게재확정일: 2019.05.17.

*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Foreign Language, Nantong University.